순천만국가정원 콘텐츠 확대… 정원도시 도약

300만명 목표, 운영 시간 연장 개울길 정원캉스 등 프로그램

전라남도 순천시가 최근 누적 관람객 200만명을 돌파한 순천만국가정원에 다채로운 콘텐츠를 채워 넣고 있다. 시는 국가정원이 웰니스 관광지로서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순천만국가정원의 300만명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이달부터 운영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한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이어 '한여름 오아시스'를 콘셉트로 개울길 정원캉스, 한옥 밤마실, 정원드림호 수상버스킹, 어싱 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에코축으로 만들어진 순천만국가정원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순천을 대한민국 대표 생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냈다.

10년 후 열린 두 번째 박람회에서는 정원을 도심까지 확대해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라는 새로운 전이 공간을 조성했으며 지방 균형 발전 방안 제시와 생태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원 도시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후 순천만국가정원은 개장 10년 만에 직영 운영 전환과 함께 스페이스 브릿지, 시크릿 어드벤처,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관객 참여형 디지털 인형극 '두다톡' 등 디지털 기술과 문화를 접목한 신규 콘텐츠 도입한 데 이어 '정원드림호', '시크릿어드벤처' 이용 요금을 인하하는 등 체험료 현실화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순천시는 정원이라는 공간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확장, 계절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역시 'I(아이)-WEEK', 달빛 영화관, 가든 러닝 페스타 등 다채로운 자연 친화형 문화 콘텐츠를 꾸려 관람객을 만난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원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호응을 얻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원 처방 프로그램',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을 위한 '마인드가드닝 프로그램' 등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정원 활동을 통해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정원 치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여름철에는 기업과 연계한 생태·치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정원·생태 분야 전문가 강의, 해설사 동행 투어, 걷기, 가드닝 등 자연치유 프로그램, 향·소리 등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장인들에게 힐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한민국 대표 치유 관광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함을 넘어 삶의 전환점을 찾기 바란다"며 "정원이 주는 평온과 생명의 리듬이 모든 이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전통시장에 '쿨링포그' 설치·운영 보성군, 상인·이용객 폭염피해 예방

전라남도 보성군은 환경부 공모사업인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최근 전통시장 내 폭염 대응을 위한 '쿨링포그 시스템'을 가동하고 '탄소중립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비를 포함한 총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녹차골 보성향토시장과 벌교 5일 전통시장, 벌교 매일시장 3개소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쿨링포그(Cooling Fog)'는 정수된 물을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해 주변 온도를 3~5℃가량 낮추는 시스템으로, 여름철 고온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 등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에 효과적인 장치다.

군은 3개 시장에 총 100여대의 미스트 팬을 10m 간격으로 설치했으며 장옥의 높이와 간격이 협소한 구간에는 노즐을 천장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마쳤다.

쿨링포그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과 날벌레 차단 등의 부가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성=양종수 기자

순천시, 친환경 블루베리 기부 관내 아동복지시설 3곳

전라남도 순천시는 지난 8일 원예과학원에서 시범 재배한 친환경 블루베리 80팩(총 80㎏)을 관내 아동복지시설 3곳에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SOS어린이마을(45팩)과 성신원(25팩), 평화로운집(10팩)을 방문해 친환경 블루베리를 직접 전달했다.

원예과학원에서 시범 재배한 블루베리는 무농약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한 신선한 과일로, 면역력 증진 등 성장기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농업기술센터는 블루베리 7개 품종을 대상으로 지역 적응성과 생육 특성을 조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시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장흥군 생활공감정책단이 대덕읍 다목적 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염색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생활공감정책단, 어르신 대상 염색봉사

장흥군 생활공감정책단은 최근 대덕읍 다목적 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염색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원들이 직접 참여해 어르신들의 머리를 염색하고, 단순한 외모 관리 이상의 정서적 교감을 나눴다.

생활공감정책단 관계자는 "큰 일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군 생활공감정책단은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사회 복지와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지속적인 학문 교류·연구 '맞손' 순천대 인문학술원 고려대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이 최근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와 학술교류 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 간의 지속적인 학문 교류와 연구 협력을 약속했다.

9일 순천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25 충북 세계인문사회 학술대회' 기간 중 체결됐다. 양 기관은 공동 학술회의 개최, 공동 연구 및 연구자 교류,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 상호 공유, 인문사회 연구 기반 확대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합의했다.

국립순천대 인문학술원은 지난 2023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돼 '동아시아 냉전과 지역사회의 내파(內破)'를 주제로 지역사와 냉전사의 접점을 탐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고려대 독일어권문화연구소 또한 같은 해 같은 사업에 선정돼 '한국전쟁 이후 한독 교류와 협력 관련 독일 자료의 번역 및 DB 구축(1950~1970년대)'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냉전과 분단의 인문학'이라는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방향을 공유하고, 동아시아와 유럽 간 인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교류와 공동연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 디오션리조트, '앨리스' 특별전·신비동물원 오픈

여수 디오션리조트가 오는 19일부터 '앨리스, 마이 원더랜드' 전시를 시작으로, 체험형 전시공간 '아쿠아가든&신비동물원'을 새롭게 선보이며 남해안 대표 해양문화복합리조트로의 도약에 나선다.

디오션리조트는 그간 호텔, 콘도, 워터파크, 골프장, 아트갤러리, 컨벤션홀 등 인프라를 갖춘 복합 공간으로,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휴양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콘텐츠 확대는 '머무는 리조트'를 넘어 '경험하는 공간'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우선 오는 19일부터 개최되는 '앨리스, 마이 원더랜드' 특별전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탄생 160주년을 기념한 체험형 전시로, 약 9개월간 디오션리조트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존 테니얼의 초간본 삽화, 희귀 빈티지 컬렉션과 함께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원더랜드'를 탐험하는 구조로 기획됐다. 아이들은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마법 같은 세상을 누비고, 어른들은 어린 시절의 감성과 향수를 되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7월 중 개장 예정인 '아쿠아가든&신비동물원'은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한 가족형 체험 공간이다. '아쿠아가든'은 수생 생태계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전시 공간이며, '신비동물원'에는 수달, 카피바라, 펭귄 등 31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실내형 체험 콘텐츠가 마련된다. 단순 관람을 넘어 교육적 체험과 힐링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획됐다.

또한 전시장 내에는 고급 커피와 갓 구운 베이커리를 제공하는 휴식 공간도 마련돼, 여수 도심 속 새로운 일상형 힐링 장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유광현 디오션리조트 회장은 "이번 전시·체험 콘텐츠는 숙박과 여가를 넘어선 '스토리가 있는 리조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교육이 결합된 콘텐츠를 통해 여수를 대표하는 해양문화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디오션리조트는 이번 콘텐츠 확장을 계기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여수를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의 체류형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수달생태공원·워터파크 무료 개장 구례군,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전라남도 구례군이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섬진강 수달생태공원 물놀이장과 산동면 나들이 워터파크를 무료로 개방한다.

9일 구례군에 따르면 섬진강 수달생태공원 물놀이장과 산동면 나들이 워터파크 모두 오는 12일부터 8월24일까지 44일간 무료로 운영한다.

먼저 수달생태공원 물놀이장은 매년 여름철 가족단위 이용객과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올해도 철저한 시설점검과 정비를 마쳐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물탱크 청소 및 시설물 점검을 위한 정기 휴무일이다. 우천 시에도 운영하지 않으므로 방문 전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례군은 개장에 앞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물놀이장 내 시설 정비, 수질 소독, 위생관리를 마쳤으며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해 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나들이 워터파크는 지리산온천관광지 나들이장터에 위치하며 1일 약 1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다. 시설 면적 약 1545㎡에 지리산반달곰을 테마로 종합놀이대, 바닥분수 등 10종 26개의 물놀이 기구와 화장실, 샤워실, 그늘막, 피크닉 테이블 등 부대시설이 완비돼 있다.

무료 운영 기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시간당 50분 운영 후 10분 휴식으로 하루 총 7회 운영된다.

군민은 물론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하다. 아쿠아슈즈를 착용하거나 맨발로만 입장 가능하고 안전을 위한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곽지혜 기자